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족부족관절

논문제목 심한 내반 변형을 동반한 족관절 말기 관절염에서 시행한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의 단기 추시 결과

영문제목 **Short-term Result of Total Ankle Replacements for End Stage Ankle Arthritis with Severe Varus Deformity**

발표자 전태환                      책임저자 성기선

저자 성기선, 전태환, 이근호

기관명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서론 :** 족관절 말기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은 족관절 유합술과 함께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초기 1세대 인공관절의 실패 이후 새로운 세대의 삽입물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삽입물에 대한 단기 및 중기 추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의 적응증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족관절 변형의 중요한 지표인 내반 변형의 정도에 따른 족관절 전치환술의 단기 추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족관절 말기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은 족관절 유합술과 함께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초기 1세대 인공관절의 실패 이후 새로운 세대의 삽입물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삽입물에 대한 단기 및 중기 추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의 적응증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족관절 변형의 중요한 지표인 내반 변형의 정도에 따른 족관절 전치환술의 단기 추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과 :** 평균 AOFAS 족관절 평가점수가 A군은 42.52점(17~57점)에서 82.7점(62~97점)으로, B군은 45.23점(11~76점)에서 79.09점(55~9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통증에 대한 VAS 점수도 A군은 7.81점(3~10 점)에서 2.8점(0~6점)으로, B군은 8.74점(6~10점)에서 3.7점(0~8점)으로 향상되었는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매우 만족 46례, 만족 33례로 86.8%의 환자가 수술 후 주관적으로 만족하였으며, A군은 전체 21례 중 매우 만족 10례, 만족 9례 였고, 보통 1례, 불만 1례 였다. B군은 전체 70례 중 매우 만족 36례, 만족 24례, 보통 5례, 불만 5례 였다. 평균 족관절 운동 범위는 A군은 37.14도(10~70도)에서 38.75도(15~55도)로 증가하였으며, B군은 39.71도(5~70도)에서 41.06도(15~60도)로 증가 하였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족관절 내과 골절이 A군에서 1례, B군에서 3례가 발생하였고, A군에서 비골 골절이 2례가 발생하였다. 경골부 인공 삽입물 전외측 파절골 골절은 A군에서 1례, B군에서 2례가 발생하였고, 이들 골절은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여 모두 유합되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8례가 발생하였는데, A군에서 2례, B군에서 6례였으며, 이소성 골화는 A군에서 1례, B군에서 2례, polyethylene 인공 삽입물의 탈구는 B군에서 1례, 거골의 무혈성 괴사는 A군에서 1례, B군에서 1례, 경골 삽입물의 비감염성 해리는 B군에서 1례, 비복 신경 마비는 B군에서 1례 등이었다. 재치환술 또는 족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A군에서, 1례(실패율1/21) B군에서 3례(실패율3/70)가 있었다. 수술 후 피부와 심부 감염의 발생은 두 군 모두에서 없었다.

**결론 :** 내반 변형의 정도에 따른 족관절 전치환술의 단기 추시 결과는 통증과 기능의 향상에서는 두 군이 유의할 만한 차이 없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과 삽입물 실패도 두 군의 모수를 고려하여 비교할 때 서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족관절 내반 변형 20도 이상의 환자에서도 인공 족관절 치환술은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되며 추 후 장기적인 추시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 :**

족관절,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 족관절 관절염, 족관절 내반 변형, Mobility, Hintegra

---